

최남선 시조집 『백팔번뇌』의 어휘에 대하여

장충덕*

|| 차례 ||

- I. 서론
- II. 『백팔번뇌』의 서지
- III. 소멸된 어휘
- IV. 의미가 변한 어휘
- V.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육당 최남선의 시조집 『百八煩惱』를 대상으로 20세기 초의 국어 어휘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지금까지 국어사 연구에 있어서 개화기에 대한 연구는 많았지만 20세기 초 국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막연히 현대 국어와 같다고 인식하여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20세기 초는 언어 변화가 많았던 시기로 당시 언어에 대한 연구는 현대 국어 연구뿐만 아니라 국어사 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의의를 가질 것이다.

본고에서는 『百八煩惱』의 어휘를 현대 국어와 비교하여 소멸된 어휘와 의미가 변한 어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소멸된 어휘는 현대 국어 사전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잘못된 것으로 처리된 어휘를 말하며, 의미가 변한 어휘에는 의미 적용 범위의 확대나 축소에 의한 의미 변화, 전염에 의한 의미 변화, 비유적 의미로의 변화 등이 있다.

이 시집이 간행된 지는 80여 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도 지금은 모르는 어휘나 소멸된 어휘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20세기 초에 언어 변화가 심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20세기 국어는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인해 소홀해지기 쉽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라지거나 변화하는 어휘는 더욱 많아질 것이므로 더 늦지 않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어휘, 『百八煩惱』, 어휘 소멸, 의미 변화, 의미 적용 범위 확대, 전염, 비유법

* 충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I. 서론

본고는 六堂 崔南善의 시조집 『百八煩惱』의 어휘를 현대 국어와 비교를 통하여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百八煩惱』는 1926년에 간행된 최초의 창작 시조집이다. 1920년대는 국어사 연구에서 현대 국어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시기를 포함한 20세기 초 국어에 대한 연구는 현대 국어 연구에 포함되어 있을 뿐 별도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어사 연구에서 개화기에 대한 연구는 일찍부터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개화기라고 하면 1880년대부터 1910년까지를 말한다. 개화기를 근대 국어와 현대 국어를 이어주는 과도기적 시기라고 한다면, 20세기 초의 시기는 현대 국어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20세기 초의 국어에 대한 정밀한 연구야말로 현대 국어의 연구를 위한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국어사 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어사 연구에 있어서 개화기에 대한 연구는 많이 있었으나 20세기 초 국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막연히 지금과 같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20세기 초에 창작된 시나 소설을 읽다보면 모르는 어휘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단순히 정서법 차이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 무슨 의미인지 짐작할 수 없는 어휘가 등장한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어휘라 하더라도 문맥의 의미가 지금과는 다르게 쓰이는 예도 많이 볼 수 있다. 이는 이 시기의 언어가 지금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가 지금과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해서 무시하고 지나칠 것이 아니라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어 어휘사 연구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20세기 초의 작품인 『백팔번뇌』의 어휘를 정밀하게 검토하여 공시적 어휘 목록을 정리하고, 현대 국어와 비교를 통하여 현재 소멸된 어휘와 의미가 변한 어휘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아주 제한적인 텍스트로 한 시기의 언어

를 논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이러한 작업들이 쌓이면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I. 『백팔번뇌』의 서지

육당 최남선은 한국 신문학의 개척자이며, 계몽주의 문학의 선구자이다. 그는 잡지 『少年』에 최초의 신체시 ‘해에게서 소년에게’를 발표하는 등 신문학 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형식의 문학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통 장르인 시조 부흥 운동에도 앞장선 인물이었다. 그는 『少年』, 『青春』 등의 잡지에 고시조를 소개하고 직접 시조를 창작하기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歌曲選』, 『南薰太平歌』, 『時調類聚』 등의 고시조집을 편찬하기도 하였다. 그는 시조를 민족문학의 유일한 시형(詩型)으로 인식하고 시조의 형식을 발전시키는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시조부흥운동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최초의 개인 창작 시조집인 『百八煩惱』이다.

시조집 『百八煩惱』는 1926년(大正 15년) 동광사(東光社)에서 간행되었다. 본문의 앞에 저자 서문이 있으며, 본문 뒤에는 박한영(朴漢永), 홍명희(洪命熹), 이광수(李光洙), 정인보(鄭寅普) 등의 발문(跋文)이 있다. 저자는 서문에서 시조가 조선 문학의 정화(精華), 조선 시가의 분류이며, 예술적 재산의 성형이라고 하고, 이것을 문자 유희에서 건져내어 엄숙한 사상의 용기(容器)로 만들려고 애쓴 시조집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시조의 틀에 육당의 사상을 담고자 하였음을 말하는 것이다.

『百八煩惱』의 본문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의 작품 수는 제1부 ‘동청나무 그늘’에 36수, 제2부 ‘구름 지난 자리’에 39수, 제3부 ‘날아드는 잘새’에 36수이다. 저자는 서문에서 “일백팔 편을 한 권에 뭉쳤다”라고 했으나, 실은 제2부에 39수가 실려 108편이 아닌 111편이 실려 있다.

『百八煩惱』는 우리의 민족적 감정을 담을 수 있는 전통적 정형인 시조로 표현해 놓은 작품집이다. 『百八煩惱』는 이후 시조문단에 큰 영향을 끼쳤다. 『百八煩惱』는 우리의 고유한 운율의 정형시인 시조가 독자적으로 현대시의 한 영역을 차지하며 詩장르로 인식될 수 있게 되었다.

육당의 시는 언어상의 기교를 중시하지 않고, 절박한 현실적 상황 속에서도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인생의 정규를 자신의 입을 통하여 대변하고 있다. 그래서 명확한 역사성과 가치성을 제시하여 더불어 즐기며 더불어 슬퍼할 수 있는 감동적인 언어의 사용자로서 가장 본질적인 시인이었다(黃良秀, 1969:65).

『百八煩惱』에는 고어투의 표현이 많다. 이는 고시조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자어의 사용은 많지 않다. 최남선도 처음에 시조를 지을 때는 한자어나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을 많이 사용하였다. 그러나 『百八煩惱』에 와서는 거의 순화되어 제목이나 지명을 제외하고는 고유어가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이 시조집은 어려운 어휘에 대해 저자가 각주를 달아 놓았다. 이러한 시어 풀이는 놓치기 쉬운 독자의 이해에 도움을 준 시인의 배려이다. 이러한 배려가 지금에 와서는 당시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Ⅲ. 소멸된 어휘

1. 궁겁다

궁거워 <궁거워>

‘궁겁다’는 ‘궁금하다’의 뜻이다. ‘궁겁다’는 근대 국어 이전 시기의 문헌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문헌 자료로는 19세기 사전류나 고소설 자료에

처음 나타나고 있다.

- (1) a. 궁겁다 : To be impatient ; to be uneasy ; to be anxious → 궁금하다
 <韓英字典, 289>
- b. 궁겁다 : Inquiétant, ennuyeux. Etre dans l'attente, dans l'anxiété.
 <韓佛字典, 207>
- c. 부인이 한편으로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 궁거운 마음에 온 사람을
 급히 불너 부르니 <녀장군전, 7>
- d. 네 사성존망을 모로되 궁겁기 충냥 업더니 <삼설기27, 三:6b>
- (2) a. 궁금하다 悶悶 悶鬱 <國漢會語, 41>
- b. 궁금하다 : To be uneasy ; to be impatient ; to be anxious <韓英字典, 289>
- c. 궁금하다 : S'ennuyer <韓佛字典, 208>

위의 예문을 보면 ‘궁겁다’와 ‘궁금하다’는 의미가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韓英字典>이나 <韓佛字典>의 설명은 지금의 ‘궁금하다’와는 다른 의미를 기술하고 있다. 현재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궁금하다’에 대하여 ‘무엇이 알고 싶어 마음이 몹시 답답하고 안타깝다.’라는 의미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19세기 사전에서는 ‘궁겁다’를 ‘불안하다, 열망하다, 걱정되다’의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

이후 20세기 초의 사전에서도 ‘궁겁다’와 ‘궁금하다’를 같은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

- (3) a. 궁겁다 : 「궁금하다」に同じ。<朝鮮語辭典(1920), 118>
- b. 궁금하다 : 憂慮す。<朝鮮語辭典(1920), 118>
- c. 궁겁다 : 「궁금하다」와 같음。<朝鮮語辭典(1938), 200>
- d. 궁금하다 : ① 알고 싶어 걱정되다. ② 마음이 안 놓이다. 염려되다。
 <朝鮮語辭典(1938), 200>

- (4) a. 안해의 병을 씻은듯이 고쳐줄 수가 있겠는가, 검삼수삼 모두가 궁거웠
다. <김유정, 땡벌, 306>
b. 비틀기도 무엇이 궁거워 구구 우느뇨 <달, 정지용시집, 73>
c. 색씨가 온 어떻게 생겼을가 궁거운 그 초조밖에는. <김유정, 애기,
373>

그런데 이 시기의 의미는 이전 시기와 차이가 있었다. 지금의 의미와 비슷한 ‘알고 싶어 걱정되다. 마음이 안 놓이다. 염려되다’ 등의 의미로 변화하였다. 특히 20세기 소설류에는 ‘궁겁다’가 지금의 ‘궁금하다’의 의미로 사용된 예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궁겁다’가 더 이상 쓰이지 않는다.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궁금하다’만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고, ‘궁겁다’는 “① ‘궁금하다’의 잘못. ② ‘궁금하다’의 북한어.”로 기술하여 표준어가 아닌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두 단어의 유의 경쟁으로 인하여 ‘궁겁다’가 소멸되고 ‘궁금하다’만 남은 것이다.

2. 애적

애적에 곱게보심은 뜻도아니 헛소라. <궁거워, 其七>

‘애적’은 ‘當初’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다. ‘애적’은 근대 국어 이전의 문헌에서는 용례를 찾아볼 수가 없다. 19세기 말 <韓英字典>에서 최초로 나타난다.

- (5) a. 애적에 : Fast of all ; from the first ; In Childhood. See 애저녁에 <韓英字典, 2>
b. 애저녁에 : Fast of all ; from the first. See 애전에 <韓英字典, 2>

- c. 애초에 : Fast of all ; from the first ; at the beginning. See 애적에 <韓英字典, 2>
- (6) a. 애초 : 初 <朝鮮語辭典(1920), 576>
- b. 애저녁 : 「초저녁」に同じ。<朝鮮語辭典(1920), 576>
- c. 애초 : 맨 처음. <朝鮮語辭典(1938), 942>
- d. 애적 : 「애저녁」의 사투리. <朝鮮語辭典(1938), 942>
- e. 애저녁 : 애초. 처음. <朝鮮語辭典(1938), 942>

‘애적’은 ‘애’와 ‘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애’는 ‘아시’(訓蒙字會 下:12)로 소급한다. ‘아시’는 ‘처음, 시초’의 뜻이다. ‘아시’는 ‘△’의 소실로 근대 국어에서는 ‘아이’로 나온다. 이 ‘아이’가 축약되어 ‘애’가 된 것이다. ‘적’은 ‘시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애적’은 ‘처음 시간’의 의미를 갖는다.

‘애적’과 비슷한 단어로 ‘애저녁’과 ‘애초’가 있다. ‘애저녁’은 ‘애+저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원래는 ‘초저녁’의 의미였는데 의미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애초 처음’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애초’는 ‘애’와 ‘초(初)’로 분석된다. ‘애’는 ‘애적’과 마찬가지로 ‘처음, 시초’의 뜻이고, ‘초’는 한자어 ‘初’이다. 그렇다면 ‘애초’는 같은 의미를 갖는 고유어 ‘애’와 한자어 ‘初’가 합쳐진 동의 중복형 합성어이다.¹⁾

그런데 ‘애적’은 1930년대에 어문규범이 정해질 때 표준어로 인정되지 못한다.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에는 ‘애초’를 표준어로 삼고, ‘애국, 애시, 애적, 애저녁, 애전, 아시’ 등은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았다.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도록 하였다. 이것은 당시에 ‘애초’가 ‘애국, 애시, 애적, 애저녁, 애전, 아시’ 등에 비해 널리 쓰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1) 국어에서 ‘애초’ 외에도 ‘담장(담牆), 뺨골(뺨骨), 바람벽(바람壁), 속내(속內)’ 등과 같이 고유어와 한자어가 합성된 동의 중복형 합성어가 많다.

표준어로 ‘애초’가 선택됨으로 인해 ‘애적’의 쓰임은 줄어들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애적’을 ‘애초의 잘못’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1920년대에는 표준어도 없었고 정확한 어문 규범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표준어와 방언의 구별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당시의 어휘가 지금도 방언에서 사용된다면 소멸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상도 방언에서 사용되기도 하였지만 지금은 쓰임이 거의 없는 편이다. 세종계획 21의 ‘방언검색프로그램’에서도 ‘애적’은 검색되지 않았다. 그래서 소멸된 어휘에 포함하여 기술한 것이다.

3. 한고작

한고작 든든커늘 외로웁게 보시고녁, <안겨서, 其五>

‘한고작’은 <표준국어대사전>에도 표제어로 실려 있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중세 국어나 근대 국어 문헌에도 나타나지 않고, 20세기 초에 간행된 <朝鮮語辭典>(1920)이나 <朝鮮語辭典>(1938)에도 표제어로 올라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단어가 보편적으로 쓰이던 것이 아니라 저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어휘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시에 쓰인 다른 시인의 작품에서 사용된 예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예가 많지 않음을 볼 때 20세기 초 당시에 쓰임이 많았던 단어는 아니다.

- (7) a. 丈夫의 품은뜻들 한고작 끝겨시늘 <朴芽枝, 먼곳간 벗들에게(新人文學, 1936, 87)>
 b. 이 하늘이 한고작 높고 / 이 땅이 가지록 넓고 <朴芽枝, 蟄伏(심화, 1946, 6)>

위의 예문을 볼 때 ‘한고작’은 ‘한껏, 매우’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한고작’은 ‘큰’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한-’과 ‘기껏 따져 보거나 헤아려 보아야’의 뜻을 가진 ‘고작’이 결합한 것으로 ‘더할 수 없는 정도’의 의미로 보인다. 이 시조의 주석에서도 ‘더할나위 업시, 極度’의 의미로 기술하고 있다.

4. 자채

님자채 달도밝고 님으로헤 쏘도고야, <안겨서>

님자채 쓴히는애 님썩구태 가렸도다, <어쩔가>

‘자채’는 ‘때문에, 까닭에, 故로’의 의미를 가진 단어이다. 이 단어는 이전 시기에도 용례를 찾을 수 없고 현대 국어에서도 용례를 찾기 힘들다. <표준국어대사전>에도 표제어로 실려 있지 않다. 물론 20세기 초에 간행된 <朝鮮語辭典>(1920)이나 <朝鮮語辭典>(1938)에도 표제어로 올라있지 않다. 위의 예문 외에는 다른 용례가 없어서 어떻게 만들어진 단어인지 알기가 어렵다.

5. 시위다

너헛다 집어내면 안시원 것 업스시니, <안겨서, 其六>

위 예문에서 ‘시위다’는 ‘강하다, 질기다’의 의미를 가진 단어이다. 이 시조의 주석에서도 ‘굳세고 질기다, 強韌’으로 기술하고 있다. ‘시위’는 중세 국어 시기부터 나타나지만 위 예문과는 달리 ‘待衛, 활시위, 홍수’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뿐이었다.

- (8) a. 손지 님금을 시위호으오디 주구므로써 호느니 도호 물 호야 므슴호료
 <三綱行實圖, 忠:10a>
 b. 초의는 ㅁ장 후히 호는 테호야 우홀 잘 시위호야 평안호으시기 호니
 <서궁일기, 9a>
 c. 衛 시위 위 <新增類合, 下:14b>
- (9) a. 弓弦 활시위 <譯語類解, 上:21a>
 b. 풀 활시위 잇거든 가져오라 <重刊老乞大諺解, 下:30b>
 c. 弦 활시위 <廣才物譜, 軍旅:3b>
- (10)a. 潦 빗물 료 洪 시위 홍 <訓蒙字會, 上:3a>
 b. 水漲發洪 시위 나다 水滿漕 시위 나다 <譯語類解, 上:2b>
 c. 水漫出 시위 나다 水濺出 물 뛰다 <漢清文鑑, 1:42b>

위 예문 (8)은 ‘待衛’, (9)는 ‘활시위’, (10)은 ‘홍수’의 의미이다. 이처럼 중세 국어나 근대 국어 문헌 자료에서 ‘군세고 질기다’의 의미로 쓰인 단어는 찾기가 어렵다. 다만 18세기 <漢清文鑑>에서 ‘군세고 질기다’의 의미로 쓰인 ‘시위다’를 볼 수 있다.

- (11) 耐長 시위다 <漢清文鑑, 4:51a>

그러나 이후의 다른 문헌에서 용례를 찾기는 힘들다. 이 시조집과 최남선의 다른 작품에서나 그 용례를 볼 수 있을 뿐²⁾, <朝鮮語辭典>(1920)이나 <朝鮮語辭典>(1938)에도 표제어로 올라있지 않으며, <표준국어대사전>에도 표제어로 등재되지 않았다.

2) 이 나무 이 뿌리로 이렇게도 시위다니 <최남선, ‘光復 五周年’, 자유신문(1955.8.16)>

6. 조부비다

안보면 조부비고 보면설미 어인일가, <궁거워, 其九>

‘조부비다’는 ‘안타깝고 초조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이 시조의 주석에서도 ‘悶迫, 焦燥’로 기술하고 있다. ‘조부비다’는 이전 시기 문헌에 나타나지 않는다. 20세기 초의 사전에는 ‘조부비다’ 대신 ‘조부비듯하다’가 나온다. ‘조부비듯하다’는 이 시조에 나오는 ‘조부비다’와 의미가 같다.

(12) a. 조부비듯하다 : 心配す. <朝鮮語辭典(1920), 751>

b. 조부비듯하다 : ① 몹시 근심하다. ② 매우 염려하다. ③ 마음이 조급하여 애를 쓰다. <朝鮮語辭典(1938), 1266>

그러나 현대 국어 사전에는 ‘조부비다’는 물론이고, ‘조부비듯하다’도 나타나지 않는다.

7. 맨이

맨이로 덩벙도다 어려서도 못될 일을, <쩌나서, 其七>

‘맨이’는 이 시조의 주석에서 ‘맑은 정신, 생무지³⁾’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뒤에 오는 ‘어려서’가 ‘醉해서, 정신 모르게’라는 의미임을 고려할 때 ‘맑은 정신’의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시 외에는 이전 문헌이나 현대 국어 사전에서도 용례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맨이’가 단일어인지 복합어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현대 국어

3) 생무지 : ① 어떤 일에 익숙하지 못하고 서투른 사람. ② 갈지 아니한 거친 땅. ③ 손을 대지 아니하여 그대로 있는 상태. <표준국어대사전>

에서 사용되는 ‘맨정신’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비슷한 점을 고려할 때, ‘맨-’은 일부 명사 앞에 붙어서 ‘다른 것이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정신, 생각’ 등의 의미가 있는 명사로 볼 수 있다. <朝鮮語辭典>(1938)에 ‘理致’의 준말인 ‘이’가 표제어로 올라 있는데⁴⁾ 이 말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추정한다.

8. 어리다

맨이로 덤벙도다 어려서도 못될일을, <씨나서, 其七>

중세 국어나 근대 국어의 ‘어리다’는 ‘어리석다’, ‘나이가 젊다’ 등을 가리키는 단어이다.

- (13) a. 愚는 어릴 씨라 <訓民正音, 2a>
 b. 愚 어릴 우 <訓蒙字會, 下:13a>
 c. 어릴 우 愚 <光州版千字文, 42a>
 (14) a. 어릴 치 稚 <倭語類解, 上:20a>
 b. 어릴 유(幼) <正蒙類語, 9b>

그러나 시조의 예문은 ‘어리석다’나 ‘나이가 적다’의 의미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 이 시조의 주석에는 ‘醉해서, 정신 모르게’로 설명하고 있다. ‘취하다, 정신없다’의 의미가 있는 ‘어리다’는 19세기 이전 시기의 문헌에서 찾아볼 수 없다. <朝鮮語辭典>(1920)에서도 ‘나이가 적다. 얇게 얼다’의 의미만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朝鮮語辭典>(1938)에는 ‘취(醉)하다의 옛말’이라는 설명이 있다.⁵⁾ 이를 볼 때, ‘취하다’의 의미로 쓰인 용례는

4) 이(理) 「이치」(理致)의 준말. <朝鮮語辭典(1938), 1125>

5) 어리다 「취(醉)하다」의 옛말. <朝鮮語辭典(1938), 964>

찾을 수 없으나 이전에 ‘취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馬經抄集諺解>에 나오는 ‘마비시키다’의 뜻인 ‘어리다’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5) 신막이 식히고 팀하면 허리의 브으름 나며 다리를 어리고(腎脉瀼而沈腰
靡腿痠) <馬經抄集諺解, 上:諸脉主病>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취하다’, ‘정신없이’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리다’는 나타나지 않는다.

9. 머귀

한나무 머귀덕에 쏘약벧도 겁업서라, <東山에서>

‘머귀’는 ‘梧桐’을 가리키는 말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오동’의 옛말로 기술하고 있다. ‘머귀’는 일찍이 15세기부터 사용되어 20세기 초까지 사용되었다.

- (16) a. 梧桐은 머귀니 舍歡樹 | 梧桐 곧 허니라 <月印釋譜, 7:54a>
- b. 梧 머귀 요 桐 머귀 동 <訓蒙字會, 上:5b>
- c. 桐葉 머귀나모 님 <東醫寶鑑, 3:41b>
- d. 블근 桂樹엔 브릅과 서리와 색르고 프른 머귀는 닛과 바의 떠러디닛
다 <杜詩諺解(重), 5:15a>
- e. 상杖은 머귀나모로써 호디 우흔 두련고 아래는 반득게 허라 <家禮諺
解, 6:15b>
- f. 梧桐樹 머귀나모 <方言類釋, 20b>
- g. 머귀나무 梧桐 <國漢會語, 111>
- h. 머귀나무 : 桐(梧桐) <朝鮮語辭典(1920), 308>

- i. 머귀나무 : 현삼과(玄蔘科)에 붙은 낙엽교목(落葉喬木). 목재는 기구를 만드는데 쓰는 나무. 梧桐 <朝鮮語辭典(1938), 467>
- (17) a. 프른 머괴논 鳳凰의 깃 깃던 가지 늘겻도다 <杜詩諺解(重), 6:10b>
- b. 梧桐樹 머괴나모 <譯語類解, 下:42a>

예문 (16)은 15세기부터 20세기까지 문헌에 보이는 ‘머귀’의 예이다. ‘머귀’는 17세기에 제2음절의 ‘ㄷ>ㄱ’ 변화를 겪은 ‘머괴’와 ‘머괴나모’와 같은 어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한편 ‘오동’은 17세기 문헌에 처음 나타난다.

- (18) a. 숲에 므라 오동즈 ㅁ티 비비여 저제 혼 환식 풀어 입에 흘려 드리라 <諺解胎産集要, 70a>
- b. 오동 梧桐 <倭語類解, 下:27a>
- c. 오동나무 : 梧桐 Nom d'une esp. d'arbre don't les feuilles sont tres-larges. *Jatropha curcas*, *Mediciner curcas*. Alisier des bois. Platane. V. Syn. 머귀나무. <韓佛字典, 58>

‘머귀’와 ‘머괴’는 고유어이고 ‘오동’은 한자어이다. 근대 국어까지만 해도 ‘머귀’가 ‘오동’보다 더 높은 빈도로 나타나지만, 20세기 문헌에서는 상황이 역전되어 ‘머괴’는 오히려 드물게 되어 버렸다. 결국에는 늦게 나타난 ‘오동’이 ‘머귀’를 몰아내 버렸다. ‘머귀’는 한자어인 ‘梧桐’과의 유의경쟁에서 밀려나 소멸하게 된 것이다. 한자어는 의미 전달의 측면에서 고유어보다 명확하여 유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다.

10. 에워들다

에워드는 사나운물 누를밧고 겁안내며, <어쩔가, 其六>

‘에워들다’는 ‘감싸서 위협하다’의 의미를 보이는 단어이다. 이 시조의 주석에서는 ‘圍逼’로 기술하고 있는데, 예문의 내용을 보면 ‘사나운 물이 감싸서 달려드는데 겁을 내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 국어에서는 ‘에워들다’는 보이지 않고 ‘에워싸다’는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다. 이는 ‘에워들다’를 합성어로 보지 않고 구 구성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20세기 초 <朝鮮語辭典>에도 ‘에워가다’, ‘에워싸다’는 나오지만 ‘에워들다’는 표제어로 올라있지 않다.

다만 ‘에워들다’가 아니라 ‘에워 들어오다’는 19세기 소설이나 20세기 초 신소설 자료에서 볼 수 있다.

- (19) a. 산상으로서 일성포향의 큰기를 두루며 스면 팔방으로 에워드리오니,
서북은 왕능이요, 동북은 주창이요, 정동은 녕포요, 동남은 평월이요,
<초한전정실기, 66>
- b. 문득 구름이 스면으로 에워 드리오며 기를 응위하여 간 디 업스니
<숙향전, 中:20a>
- c. 뒤밧쳐 총소리가 콩복듯 스면으로 에워드리오니 여러적흔이 불의지변
을 당하야 동서분주하난디 <우중행인(신소설), 188>

‘에워들다’는 ‘에우다’와 ‘들다’가 합쳐진 말로 ‘에워싸며 들어오다’의 의미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1. 가멸한이

잘난이 가멸한이 옹괴옹괴 모인채로 <市中을굽어보고>

‘가멸한이’는 ‘부자’를 가리키는 단어이다. 이 단어는 ‘가멸하+-ㄴ#이 (의존명사)’로 분석할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가멸하다’는 ‘가

멀다'의 잘못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가멸한이'는 나오지 않는다.⁶⁾ 또한 '가멸다'는 '재산이 넉넉하고 많다'로 기술하고 있다. '가멸다'의 중세 국어 형태는 '가스멸다'이다.

- (20) a. 豊은 가스멸씨오 樂은 즐거볼씨라 <月印釋譜, 12:8b>
 b. 富 가스멸 부 <訓蒙字會, 下:11b>
 c. 사회와 며느리의 텃성과 흥덕과 가무네 레법이 엇던고 학야 슬피고
 그 가스멸며 귀호를 혼갓 올워디 마물디니라 <翻譯小學, 7:32a>
- (21) a. 가으멸며 貴호니는 반드기 이마티 홀디니 <杜詩諺解(初), 24:3b>
 b. 가으멸 부 富 <千字文(칠장사판), 17a>
- (22) 세상에 권세 잇고 가멸고 총명호다 호는 사람들이 혹 니러나서 <天路歷程, 上:84b>
- (23) a. 우리는 우리 힘으로 밝게 호고 유정호게 호고 질겁게 호고 가멸게 호고
 고 곳세계 흘 것이로다. <이광수, 무정, 3:623>
 b. 가멸다: ① 집안이 부유하다. 재산이 많다. ② 넉넉하다. <朝鮮語辭典(1938), 9>

(20)은 15,6세기 '가스멸다'의 예문이다. (21)은 '가스멸다'에서 유성음 사이의 '△'이 탈락하여 '가으멸다'가 된 예문이고, (22)는 '으'가 'ㅍ'와 합쳐져서 '가멸다'가 된 예문이다. (23)은 20세기 초 사전이나 소설 작품에 등장하는 '가멸다'의 예이다.

'가멸다'는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으나, '가멸한이'는 '富者' 등의 한자어에 밀려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다. 단어뿐만 아니라 '가멸한 이'의 구 구성으로도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6) '가멸한이'가 사전에 올라 있지 않은 것은 '가멸한이'를 '가멸한 이'의 구조를 가진 구 구성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IV. 의미가 변한 어휘

1. 하마

보면은 알권마는 하마 알 듯 더몰라를, <궁거위, 其二>

쪽가튼 한가람을 하마 붉혀 버린러니, <大洞江에서>

‘하마’는 시인의 주석에서 ‘거의거의, 庶幾, 조금 하더면’의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 ‘하마’는 중세 국어 시기부터 사용되던 단어이다. 중세 국어 시기의 형태는 ‘호마’와 ‘하마’로 나타난다.

(24) a. 호마 아호빌씩 出家하여 聖人入 道理 비화사 호리니 <釋譜詳節, 6:3>

b. 나히 八十이 디나 머리 세오 느치 디드러 아니 오라 호마 주그리니 <釋譜詳節, 17:47>

(25) a. 즈세히 살펴보면 하마 거의 알니노니 <萬言詞>

b. 하마 국스를 그릇 흘변호고 <落泉, 4:10>

(24)는 ‘호마’의 예이고, (25)는 ‘하마’의 예이다. (24a)는 ‘이미, 벌써’, (24b)는 ‘장차(將次)’의 의미를 나타내고, (25a)는 ‘이미, 벌써’, (25b)는 ‘하마터면’의 의미를 보이고 있다.

‘하마’는 19세기나 20세기 소설 작품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보이고 있다.

(26) a. 죄 왈 하마 너를 다시 못 볼 번 호도다 호고 인호여 <삼국지, 2:05a>

b. 그 한가로움을 한결 도아, 하마 줄음이 올 뜻만 하였다. <채만식, 도야지, 08>

c. 하마 : 「하마트면」의 준말 <朝鮮語辭典(1938), 1522>

그러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하마’를 ‘바라건대, 행여나 어찌하면’이나 ‘벌써’의 방언(강원, 경상, 충북)으로 기술하고 있다.

2. 부피

부피를 녀것더니 쏘그대로 길차도다, <궁거워, 其四>

현대 국어에서 ‘부피’는 ‘넓이와 높이를 가진 물건이 공간에서 차지하는 크기.’ 또는 ‘입체가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조의 주석에서는 ‘뚱뚱함, 容積잇슴.’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부피’가 20세기 초에는 ‘뚱뚱하다’, ‘부피가 크다’의 의미로 덩치가 큰 물건 등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부피’는 중세 국어나 근대 국어 자료에서 찾아볼 수 없다. 문헌 자료로는 19세기 말 사전류에 처음 등장한다.

- (27) a. 부피 : What is large ; what is puffed up <韓英字典, 444>
 b. 붓피 : Calibre ; forme ; contour ; masse ; grosseur ; grandeur ; volume. <韓佛字典, 343>

위 예문의 <韓英字典>에서도 시조의 주석과 마찬가지로 ‘큰 것, 부풀어진 것’ 등의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 ‘부피’의 어원에 대하여 김민수(1999:490)에서는 ‘몸체, 크고 가볍다’는 뜻의 ‘뿔-/부프-’와 ‘-이(접사)’가 결합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부풀다’ 혹은 ‘부프다’의 ‘뿔-’에 ‘-의’가 결합한 것이 ‘부피’라는 것이다. 다음은 20세기 초의 소설 자료에 나타나는 ‘부피’의 예이다.

- (28) a. 부피있는 대궁은 나팔 소리요 가는 가지는 거문고의 음률이라고도 할까 <이효석, 들, 214>
 b. 부피를 대충하야 다섯 목에다 차례대로 메지메지 골고루 논앗든 것이다. <최만식, 노다지, 38>

예문 (28a)는 ‘부피가 큰. 굵은’의 의미이고, (28b)는 지금과 같이 ‘물건이 공간에서 차지하는 크기’의 의미로 쓰였다. 곧 ‘부피’라는 단어는 ‘부피가 큰 물건’을 가리키던 말이 점차 ‘그리한 크기(성질)’를 가리키는 말로 의미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이와 같이 사물의 특성을 가리키는 말로 의미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서 현재에는 ‘크다’뿐만 아니라 ‘작다’와도 결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3. 별로

해오리 조는곳에 모래 **별로** 깨끗해라, <熊津에서(公州錦江), 其三>

‘별로’는 이 시조의 주석에서 ‘유난히’로 기술하고 있다. ‘별로’는 17세기 문헌에 처음 나타난다.

- (29) a. 우리 **별로** 살 貨物을 의논호디 엇더호노 <老乞大諺解, 下:19a>
- b. 오늘 아춤에 가치 울고 또 즈죄옴호든 거시 응당 **별로** 親戚이 오고 <清語老乞大, 5:8a>
- c.小子 | **별로** 土産을 가져온 거시 업고 <朴通事新釋諺解, 3:59a>
- d. 그디 성현 말씀 등에 **별노** 도하호는 배 잇느냐 <種德新編諺解, 本서, 6a>

‘별로’는 한자 ‘別’에 조사 ‘로’가 결합된 어형으로 ‘따로, 특별히’ 등과 같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이다. 위의 예문에서도 ‘따로, 특별히’ 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별로’라는 단어가 ‘없다, 못하다’ 등이 부정어와 주로 공기하게 되면서 부정어의 의미에 전염되어 점차 부정을 뜻하는 의미로 변하게 되었다.⁷⁾

‘별로’의 의미가 부정적으로 바뀐 시기, 그리고 긍정적 의미가 사라진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20세기 초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30) a. 별(別)로 : 別に. <朝鮮語辭典(1920), 387>
 b. 별로 : 그다지. 그리 달리. 특별히. 별로이. <朝鮮語辭典(1938), 613>
- (31) a. 화폐 말고라도 무슨 숫자로 표현할 성적이 별로 없었다. <이광수, 흥, 243>
 b. 나는 윤이라는 사람을 아는 것이 별로 많지 못하였다. <채만식, 민족의 죄인, 416>
 c. 이런 稱讚은 하나마 별로 불버 히는 氣色이 업다 <현진건, 빈처, 176>
 d. 주위에는 옴바 누나 흥고 지나는 사람이 별로 업섯다. <이광수, 무정, 2:316>
 e. 자식을 길너서 덕을 보는 사람은 별로 업소 <안국선, 금슈회의록, 42>

위 예문 (30)과 같이 <朝鮮語辭典>에는 ‘특별히, 따로’의 의미 외에 ‘그다지, 그리 달리’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31)과 같이 20세기 초의 소설 작품들을 보면 부정어와 결합하는 경우가 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당시에 ‘별로’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로 변화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 후 1950년에 간행된 <큰사전>에는 아예 ‘그다지 다르게’라는 부정적 의미만 제시하고 있다. 사전에 기술되는 의미가 보수적인 것을 고려하면 ‘별로’는 20세기 초에 부정적인 의미로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부정을 뜻하는 말과 함께 쓰여) 이렇다 하게 따로. 또는 그다지 다르게’로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별로’가 부정적 의미만 나타내게 되면서 이제 “별로 좋다.”와 같은 긍정적 표현은 아주 어색하게 느껴지

7) 부정어 ‘없다, 앓다’ 등에 의하여 의미가 부정적으로 변하는 현상은 ‘분수, 엉터리, 주책’ 등에서 보듯 아주 빈번하다.

고, “별로 좋지 않다.”와 같이 부정적인 문장에서나 사용되게 되었다.

4. 삭막하다

맛나면 **삭막하야** 멀건한이 잇슬망정, <써나서, 其三>

위 예문에서 ‘삭막하다’는 ‘마음이 혼란스러워, 정신이 없어’ 등의 의미를 보이고 있다. 이 시조의 주석에도 ‘앗득함, 엽게失神함’으로 기술하고 있다. ‘삭막하다’는 이른 시기에는 보이지 않는 단어이다. 18세기 이후 소설 작품들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 (32) a. 삼강을 다하고져 후되 마음이 더욱 삭막호연 씨쳐 니르디 못호엿더니
 <御製經世問答續錄諺解, 13a>
- b. 슈죽을 버힌 듯 심사| 삭막하야 머리를 숙이고 <임화정연6, 하:76>
- c. 스투이 넘오 것분 일을 졸디에 당호면 도로혀 정신이 삭막호 법이라
 <김교제, 현미경, 221>
- d. 울적하고 삭막한 나의 생활 가운데 만만치 아니한 위안의 하나였었다.
 <최만식, 民族의 罪人, 420>
- e. 삭막 : 잊어버리어 생각이 잘 나지 아니하는것. 【-하다】 <朝鮮語辭典(1938), 720>

특히 20세 초 사전인 <朝鮮語辭典>(1938)에서도 본문과 같은 의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의미는 <큰사전>(1950)에서도 마찬가지이다.⁸⁾ 그런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잊어버리어 생각이 아득하다’라는 의미 외에 ‘쓸쓸하고 막막하다’라는 의미가 추가되어 있다. 지금은 ‘쓸쓸하고 막막하다’라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8) 삭막 : 잠시 잊어버리어 생각이 잘 나지 아니함. -하다. <큰사전, 1562>

5. 조만

東海의 조만 물결이 거품 다시 지리오. <石窟庵에서, 其三>

‘조만’이라는 어휘는 이른 시기에 보이지 않는다. 20세기 초의 <朝鮮語辭典>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조만’과 관련된 단어로는 <큰사전>(1957)에 나오는 ‘조만하다’가 최초이다.

- (33) a. 조만하다 : ① 크지도 작지도 또는 더하지도 덜하지도 아니하고 조려한 대로 있다. ② 일이 조려한 형편에 있다. <큰사전, 2736>
 b. 조만하다 : 상태, 모양, 성질 따위의 정도가 조려하다.⁹⁾ <표준국어대사전>

그러나 이 시조의 주석에서는 ‘조만’을 ‘하치안흔, 蕞爾, 眇然’으로 기술하고 있어 현재의 ‘조만하다’와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 그것보다는 ‘조그마하다’¹⁰⁾나 ‘조그마한’의 준말인 ‘조그만’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그마하다’와 ‘조그만’은 중세 국어 시기에 ‘쥬고마흐다’와 ‘쥬고만’으로 나타난다.

- (34) a. 문호니 艮峯엿 픈론 힘비치 슬피 쥬고마흐더라 <杜詩諺解(初), 9:5a>
 b. 뽕땡이 푼히 쥬고마흐 거시로더 슬픈 소리는 즈모 사르물 感動히느다 <杜詩諺解(重), 17:37b>
 c. 참마다 비예 느리시기 어렵기는 쥬고마흐고 <捷解新語, 6:21a>
 d. 이제란 쥬고마흐 이리라도 다 각시님께 기별히여 히게 <玄風郭氏諺簡, 34>

9) 조려하다 :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저와 같다.

10) 조그마하다 : ① 조금 작거나 적다. ② 그리 대단하지 아니하다.

- (35) a. 病이 쪼고만 ㄴ란 것도 흰히 업서 <楞嚴經諺解, 1:4b>
- b. 쪼고만 아히 이서 띠양 어떡 밥불 알거늘 <東國新續三綱行實圖, 孝, 1:1>
- c. 쪼고만 것(小些的) <漢清文鑑, 11:54>

‘쪼고마하다’나 ‘쪼고만’은 ‘작은 성질이나 상태, 작은 모양’ 등을 가리키는 단어이다. 시조집 본문의 ‘조만’은 이러한 의미에서 파생되어 ‘하찮은’의 비유적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6. 수월하다

한조각 돌이리해 수월하게 보을것가, <白馬江에서(扶餘), 其二>

‘수월하다’는 근대 국어 이전 문헌에 등장하지 않는 어휘이다. 이 시조집보다 이른 시기에 나온 <韓佛字典>이나 <國漢會語>에는 ‘수월하다’가 표제어로 실려 있다.

- (36) a. 수월하다 Facile, aise. <韓佛字典, 437>
- b. 수월하다 殊越 <國漢會語, 188>
- (37) a. 그 역시 시스러워 하지 않고 수월하게 말을 받고 대답하고 하였다. <이효석, 들, 219>
- b. 징역 사는 게 농사짓는 것버덤 수월하디는데, 겁 날게 뭐유 <심훈, 상록수, 2:333>
- c. 다달이 수업료를 내는 것도 결코 수월한 노릇이 아니다. <채만식, 도야지, 6>
- d. 이렇게 수월히 잘 버는 돈이기 때문에 <채만식, 도야지, 11>

(36)은 <韓佛字典>과 <國漢會語>에 나오는 ‘수월하다’의 예이고,

(37a,b)는 20세기 초 소설 작품에 등장하는 ‘수월하다’와 ‘수월하다’의 예이다. (37a,b)를 볼 때 ‘수월하다’와 ‘수월하다’가 의미가 같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예문에서 ‘수월하다’는 ‘쉽다, 까다롭지 않다’ 등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① 까다롭거나 힘들지 않아 하기가 쉽다. ② 말이나 태도 따위가 아주 예사롭다.’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수월하다’는 ‘쉽-[易]+ -얼(접미사)+ -하다’로 분석할 수 있다. 김민수 편 (1997:619)에서 ‘수월수월’의 어원을 ‘쉽-[易]+ -얼(접미사)’로 분석하고 있는데, ‘수월하다’의 ‘수월’도 같은 구성으로 볼 수 있다.¹¹⁾

그러나 이 시조의 주석에서는 ‘수월하다’의 의미를 ‘웃음게. 하치안케.’로 기술하고 있다. 주석에 기술된 의미는 ‘힘들지 않고 쉽다. 예사롭다’의 의미에서 파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쉽고 힘들지 않기 때문에 ‘하찮게’ 또는 ‘우습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시에서 사용된 비유적 의미로 볼 수 있다.

V. 결론

이상에서 육당 최남선의 시조집 『百八煩惱』를 대상으로 20세기 초의 국어 어휘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국어사 연구에 있어서 20세기 초 국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막연히 현대 국어와 같다고 인식하여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20세기 초는 언어 변화가 많았던 시기로 당시 언어에 대한 연구는 현대 국어 연구뿐만 아니라 국어사 연구에 있어

11) 심재기(1994)에서는 ‘休息’의 의미를 지니는 우리말 ‘쉬다’와 한자어 ‘歇하다’가 결합된 同義 重複 형태의 복합어로 간주하고, 두 단어가 결합되면서 ‘쉽다’, ‘용이하다’라는 새로운 의미가 생겨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서도 중요하게 의의를 가질 것이다.

본고에서는 『百八煩惱』의 어휘를 현대 국어와 비교하여 소멸된 어휘와 의미가 변한 어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소멸된 어휘는 현대 국어 사전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잘못된 것으로 처리된 어휘를 말한다. 본고에서는 소멸된 어휘로 ‘궁겁다, 애적, 한고작, 자채, 시위다, 조부비다, 맨이, 어리다, 머귀, 에워들다, 가멸한이’를 제시하였다. 이들 어휘가 문헌에 처음 보이는 시기와 형태를 제시하고, 어형 변화 과정과 소멸된 원인을 알아보았다.

의미가 변한 어휘에는 의미 적용 범위의 확대에 의한 의미 변화, 의미 적용 범위가 축소된 의미 변화, 전염에 의한 의미 변화, 비유법에 의한 비유적 의미로의 변화 등이 있다. 의미 적용 범위가 확대된 어휘는 ‘부피’를 들 수 있다. ‘부피’는 부피가 큰 것을 가리키는 말에서 크기를 가리키는 말로 의미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그래서 ‘크다’뿐만 아니라 ‘작다’와도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게 되었다. 의미 적용 범위가 축소된 어휘는 ‘하마’를 들 수 있다. ‘하마’는 ‘이미, 벌써, 장차, 하마터면’ 등의 의미를 나타내던 단어였는데 지금은 ‘행여나 어찌하면’의 의미로 축소되었다. 전염에 의한 의미 변화에는 ‘별로’가 있다. ‘별로’는 자주 결합하는 ‘없다’의 부정성에 전염되어 부정적인 의미로 변한 단어이다. 그리고 비유적 의미로 변한 경우는 ‘조만’, ‘삭막하다’, ‘수월하다’ 등이 있다.

이 시조집이 간행된 지 오래되지 않았으나 지금은 모르는 어휘나 소멸된 어휘를 많이 볼 수 있다. 이것은 20세기 초에 언어 변화가 심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20세기 국어는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인해 소홀해지기 쉽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라지거나 변화하는 어휘는 더욱 많아질 것이다. 더 늦지 않게 정리하는 것이 국어사 연구의 필수 작업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1. 자료

崔南善, 『百八煩惱』, 東光社, 1926.

2. 논문

강희숙, 「백석 시어의 구개음화」, 『韓國言語文學』 第53輯, 한국언어문학회, 2004, pp.97-121.

김형철, 「개화기 국어의 어휘」,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4, 국립국어연구원, 1999, pp.115-162.

문철주, 「朴英漢의 시어 연구」, 『어문학교육』 10, 한국어문교육학회, 1987, pp.187-113.

閔賢植, 「開化期 國語의 語彙(Ⅱ)」, 『국어교육』 53·54,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85, pp.19-30

閔賢植, 「開化期 國語의 語彙에 대하여-사라진 고유어·한자어를 중심으로」, 『국어생활』 4, 국어연구소, 1986, 6-23.

閔賢植, 「개화기 국어 어휘 연구 방법의 재검토」, 『東洋學』 32,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002, pp.257-289.

신웅순, 「『百八煩惱』 텍스트 읽기」, 『한국문예비평연구』 2,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1998, pp.37-53.

심재기, 「숨어있던 복합어에 대하여」, 『우리말 연구의 샘터』(연산 도수희 선생 화갑기념논총), 문경출판사, 1994, pp.402-414.

李又載, 「六堂 崔南善論」, 『인문사회과학논문집』 20집, 光云大學校, 1991, pp.17-36.

이지나, 「백석의 난해시 연구」, 『태릉어문연구』 14, 서울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6, pp.1-27.

장한섭, 「時調集 『百八煩惱』의 詩語面 考察」, 『청람어문학』 10, 청람어문학회, 1993, pp.283-310.

최병선, 「이상화 시의 시어 연구」, 『한양어문연구』 제8집, 한양언어문학회, 1990, pp.221-245.

최전승, 「詩語와 方言-‘기롭다’와 ‘하냥’의 형태론과 의미론」, 『국어문학』 35집, 국어문학회, 2000, pp.75-135.

최창렬, 「詩語의 비밀을 여는 語原情報」, 『국어문학』 26집,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86, pp.375-397.

최형기, 「永郎 詩語의 국어학적 고찰」, 『우리말글』 제21집, 우리말글학회, 2001, pp.95-118.

黃良秀, 「六堂의 ‘百八煩惱’考」, 『동악어문논집』 第6輯, 동악어문학회, 1969, pp.63-112.

3. 단행본

김민수 편, 『우리말 語源辭典』, 태학사, 1997.

김재홍 편, 『시어사전』, 고려대 출판부, 1997.

南廣祐, 『古語辭典』, 敎學社, 1997.

劉昌惇, 『語彙史研究』, 宣明文化社, 1971.

劉昌惇, 『李朝語辭典』, 延世大出版部, 1987.

李基文, 『國語 語彙史 研究』, 東亞出版社, 1991.

Abstract

The vocabularies in *Choi Namseon's* collection of *Sijo*
『*Baekpalbeonnoe*』

Jang, Chung-Deok

This manuscript is about Korean vocabularies in the early 20th century according to *Choi Namseon's* collection of *Sijo* 『*Baekpalbeonnoe*』. Until now,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about the enlightenment age in the history of the study of the Korean language. However there were few studies about the early 20th century. It hasn't been concerned because it was perceived vaguely the same as modern Korean. However there were so many linguistic changes in the early 20th century that its study is a very important matter in the modern Korean study as well as in the history of the study of the Korean language.

In this manuscript the vocabularies in collection of *Sijo* 『*Baekpalbeonnoe*』 are divided into extinct vocabularies and semantic change vocabularies as compared with modern Korean. There are the semantic change by the scope enlargement of semantic application, the semantic change by communication, and the semantic change in a figurative sense by a figure of speech and so on.

Only 80 years have passed since this collections was published. Nevertheless there are so many vocabularies we don't know or also disappeared. It proves that there were so many linguistic changes in the early 20th century. Its study has been neglected because most of us think it the recent language. But the more time passes, the more changes there will be. I think that its study is essential in the history of the study of the national language.

Key word : vocabulary, 『*Baekpalbeonnoe*』(백팔번뇌), extinct vocabularies, semantic change, the scope enlargement of semantic application, communication, a figurative sense

장충덕

충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주소 : (361-76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12

전화번호 : (043)276-9909, 010-4410-9909

전자우편 : jangcd@hanmail.net

<p>이 논문은 2009년 4월 30일 투고되어 2009년 6월 14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09년 6월 16일 게재 확정됨.</p>
--